

테마칼럼

이성제

정치프리즘

황태원

윤와영

광주 호남은 '패배주의' 극복해야



김행

29일 경선-51대 49 싸움이나 70대 30 싸움이나의 분수령 될 것

1997년, 2002년 두 번의 대선에서 정권 창출의 기적의 만들어냈던 운명의 도시 광주. 이제 5년 만에, 드디어 내일(29일) 또 다시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은 전북에서 각각 경선을 실시한다. 이 두 경선은 올 대선을 앞두고 또 한 차례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보다도 범여권 대선 후보들에게 이날은 '운명의 날'이다. 신당의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후보와 민주당의 이인제, 조순형, 김민석 후보는 추석연휴 내내 이곳에 머물면서 공을 들였다.

그러나 5년전, 10년전과는 상황이 영 딴판이다. 좀처럼 '경선 분위기'가 뜨질 않는다. 이명박 대세론에 저저선거? 신장아-변양균 사람 타령에 정신을 놓았나? '대안 부재론'에 실망해선거? 노무현 정권에 대한 뾰족 깊은 실망감 때문인가? 이유가 뭐든 광주 호남의 경선 열기는 사실상 실종상태다. 심지어 "반장선거 하나"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왜 이렇게 됐을까? 범여권후보들의 역량부족 때문일까? 이 견해엔 섣불리 동의하기 어렵다. 범여권후보들의 지지율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낮은 것은 사실이

지만 맞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

2002년 광주에서 '노풍'이 불었을 때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2%남짓에 불과했다. 범여권도 단일대오만 잘 형성하면 얼마든지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즉, 인물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결정적 원인은 조직 능력에 있었다. 범여권의 경선관리 능력은 한나라당의 그것과 비교해 '부끄러울 만큼' 형편 없었다. 불거진 조직동원과 부정경선 논란, 손 후보의 칩거소동 등은 '수권능력'을 의심케 할 정도였다. 버스떼기, 박스떼기, 명부떼기, 유령경선 등 각종 신조어까지 난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 주자들의 속단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현재의 범여권 내부의 시스템과 능력만으론 경선 흥행을 기대기 어렵게 되어있다.

이제 광주와 호남 선거인단이 나설 차례다. 가장 시급한 것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국민경선을 기억해 보라. 16부작 정치드라마로 불릴 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주말마다 각 지역의 투·개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고, 3월16일 영남 출신인 당시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서 승리하는 '노풍'을 일으키자 경선 열기는 절정에 이

르렀다.

패배주의야말로 경선을 망치는 주범이다. 신당과 민주당의 선거인단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설사 특정 후보측으로부터 동원됐다 하더라도 양심을 걸고 이명박 후보와 맞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데 동참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 놓으면 경선이후 범여권후보 단일화도 있고,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정국국회도 있다. 얼마든지 관세를 뒤집을 변수가 있다는 얘기다.

대선후보 경선은 상대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선거다. 야당 당수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정권창출을 목표로 싸워야 51 대 49 싸움이 된다. 패배를 자인하고 제 1야당이냐 하겠다고 목표를 낮춰 잡으면 70대 30 싸움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30대 건지가 어려운 게 선거다. 결국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부를 내놓아야 한다. 정치는 철저히 제로섬게임이다. 승자가 독식하는 싸움판이다. 범여권이 내일 경선에서 기쁜 안덕은 광주, 호남 민심의 투쟁뿐이다.

<전 중앙일보 기자·정치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공보의 급감, 농어촌 의료공백 현실화 되나

의료공중보건조사(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일반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병역미필자 감소와 의과대의 여학생 증가 등으로 공보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공보의 수는 올해 4천798명에서 2011년 4천403명, 2013년 3천893명, 2016년 3천286명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2018년 2천717명에서 2020년에는 1천860명으로 격감하는 등 2018년 이후부터는 공보의가 최소 필요 인력 이하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의료공중보건조사(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일반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병역미필자 감소와 의과대의 여학생 증가 등으로 공보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공보의 수는 올해 4천798명에서 2011년 4천403명, 2013년 3천893명, 2016년 3천286명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2018년 2천717명에서 2020년에는 1천860명으로 격감하는 등 2018년 이후부터는 공보의가 최소 필요 인력 이하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농어촌지역의 의료공백 상황은 심각하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촌지역은 응급의료 수요가 많아 응급대처 전문인력과 의료시설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빈번한 병원급 의료시설 하나 없는 것이 농어촌의 현실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수익성이 맞지 않아 대부

문의 병원이 농어촌에서의 개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보의들이 농어촌지역 진료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전남의 경우 올해 전국 5천300명의 공보의 가운데 710명이 근무해 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도내 의료인력 중 공보의 의존비율이 20%나 된다. 이런 현실에서 공보의의 급감은 농어촌 의료공백 사태를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하다. 건강권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생명이 위급할 때 응급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갖추는 일은 국가의 기본의무다. 농어촌 지역을 더 이상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투명성지수 세계 43위 부끄럽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투명성 지수가 뒷걸음 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도 국가 투명성 조사'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5.1점을 얻어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43위에 머물렀다. '깨끗한 정부'를 내세운 참여정부에서도 국가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투명성지수 세계 43위 부끄럽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지난해 42위에서 한 계단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국 평균 7.18점에 훨씬 못미처며 싱가포르(9.3점), 홍콩(8.3점), 일본(7.5점), 카타르(6.0점), 마카오·대만·아랍에미리트연합(이상 5.7점) 등 아시아권 국가에도 밀렸다. 말레이시아가 우리와 같은 수준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2004년 4.5점에서 2005년 5.0점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으나 지난해 0.1점 오른데 이어 올해는 제자리에 그쳤다. 세계 13위권의 경제규모가 부끄러울 정도로 2년 연속 순위가 떨어졌고 점수도 정체상태에 있다. 투명성을 높여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2005년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제도적 기본 시스템은 이미 갖추었다. 하지만 최근의 신장아제 사건에서 드러나듯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 장치가 미흡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가 투명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비아냥이 횡행하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한 사회에서 청렴성이나 윤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투명사회 실현은 국가적 과제다. 제도 및 법의 정비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직사회를 비롯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투명사회 실현은 국가적 과제다. 제도 및 법의 정비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직사회를 비롯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의료 칼럼



서승권

박씨는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환자여서 수화를 통해 대화를 해야한다. 처음 병원에 올 때도 딸이 따라와 증상을 설명해 주었다.

빠짐없이 의사소통이 됐다. 박씨와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재미있어 하기에 시험 삼아 회자 때 다른 환자들에게 똑같이 해보았더니 웬걸 생각보다 쉽게 아픈 부위, 증상의 변화에 대한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박씨가 퇴원 후 처음 외래로 내원했다. 외래 예약스케줄과 설명서를 받아들고 딸과 함께 병원 밖으로 나가면 박씨가 손잡듯이 다시 들어와 배 한 상자를 내려놓고 씩 웃는 게 아닌가. '허리수술환자가 지금 무거운 상자를 들면 안 된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싶는데 표현할 수 없

다리를 끌면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들어오는 박씨의 모습을 잘 지켜보아 심한 디스크 환자임을 알 수 있었다. MRI 검사결과 예상대로 심한 디스크였고,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우 다음날 바로 수술을 하기로 했다. 박씨의 수술은 무난히 끝났고, 퇴근 전 박씨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출가본환 기본으로 퇴근했다.

눈빛과 손짓으로 나는 진료

그런데 다음날부터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 수화통역을 해줬던 박씨의 딸이 자녀 문제로 더 이상 간병하기 어려우 박씨 홀로 병실 생활을 하게 됐다.

어서 허리를 만진 뒤 손사래를 친 다음 다시 두 손을 모아쥐고 중국인들이 '세세' 하는 것처럼 꾸벅했다니 박씨는 검지로 나를 한번 가리킨 후 엄지를 번쩍 들어올리는 것으로 모든 대화가 끝났다. 옆에서 바라보던 간호사와 다른 환자는 어색한 모양이 우스운지 얼굴을 돌리고 웃었다.

디스크 수술 후 보호자 없이 병원 생활을 해도 되지만, 박씨의 경우 청각장애가 있어 회자시 환자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치료계획 등을 설명해 줄 수 없어 당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간호사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멍하니 쳐다보다가 어쩔 수 없이 알지도 못하는 수화 흉내를 내보았다. 몇척지만 씩 웃으며 엄지와 검지를 모아 동그라미를 만들고, 입 모양으로 '오케이' 했더니 환자는 그동안 아파왔던 다리를 툭툭 친 뒤 한번 웃고는 똑같이 손가락을 모아서 '오케이'로 답변을 해줬다. 이걸로 회진은 마무리됐다. 이렇게, 사흘째도 박씨와 수화 대화로 대화가 이뤄졌다. 신기한 것은 그런 간단한 손짓 등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말해주고 싶은 내용, 환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 등 거의

의사의 말 한마디에 환자가 울고 웃을 수도, 기분 좋고 나빠할 수도 있어 한 마디가 조심스럽지만 가끔은 말에 지쳐 무성의하고 기계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있었음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말주변이 없는 나로서는 하루 내내 환자와 얘기하고 설명하는 외래진료일 보다는 수술을 하는 날이 더 편할 때가 많다. 그러다 박씨 경우처럼 눈빛과 몸짓 몇 마디로도 서로 깊은 속을 느끼는 날은 이 말 많은 세상에서 하루쯤은 아무 말 없이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동아병원 원장>

예비부부 결혼전 교육 제도화 필요

최근 우리 사회 출산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이혼율은 상당히 높았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혼율이 떨어진 이유는 정부가 이혼을 막기 위해 추진한 숙려기간제도라는 걸 도입하고 일정기간 동안 부부들이 함께 더 심사숙고 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초기에는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일부 지적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혼을 줄이고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가고 있으니 너무 다행이다.

인정하는 결혼 전 준비강좌를 최소 4시간 이상 수강해야 혼인신고를 받아준다고 한다. 프랑스는 아예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혼인 후 6개월 이내에는 협의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막아놓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혼전 숙려기간 제도 외에 추가로 적극적인 혼전교육을 실시했으면 한다. 이혼자들의 30% 이상이 이혼후 후회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충동적인 이혼을 막을려면, 미국처럼 혼전전 초기부터 적절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우인순·광주시 북구 회암동

기고



김상운

올해로 15년째가 되는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에 이번에도 이 고장 광주에서 열린다.

다행히 문화산업시대를 맞아 우리 광주는 풍부한 문화예술적 자산을 토대로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판소리 영화와 판소리 뮤지컬을 선물하면 어떨까! 영화와 뮤지컬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인기가 높고 국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친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판소리를 중심으로 두고 고구마(古古雅俗)를 아우르며 펼치는 판소리 뮤지컬! 로맨스와 판타지가 적절히 비벼지는 판소리 영화! 상상만으로 욕심을 부려본다.

거기 모인 청중은 국악대회에 참가했다기보다는 판소리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다.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객석에서 우연히 함께 남기도 하는 즐거운 시간이다. 임방울 선생은 1905년 광주에서 태어나 1961년 세상을 떠날때까지 재물에 욕심없이 오로지 소리 하나만을 알고 평생을 살아온 명창종의 명창이었다.

다행히 문화산업시대를 맞아 우리 광주는 풍부한 문화예술적 자산을 토대로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판소리 영화와 판소리 뮤지컬을 선물하면 어떨까! 영화와 뮤지컬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인기가 높고 국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친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임방울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며

린 시기였다. 임방울선생은 질곡의 역사속에 살아온 민족의 한스러운 정서를 온몸으로 울어 토해냈고, 필박박은 민초들과 인정을 나누며 살다간 소리꾼이었다.

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문화전당을 건립하여 국제수준의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고 문화예술의 창작, 공연, 교류는 물론 문화산업의 산실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만주까지 선생의 명성이 울렸고, 유성이 음반 '속대머리'는 100만장이 넘게 팔렸다는 전설같은 기록들이 남아 있다. 민족들의 한과 희망을 온몸으로 전하는 일야말로 소리꾼과 함께 우리 임방울국악진흥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는 우리의 문화예술로 남의 화설이나 예술론의 추종에서 떠나 우리의 일을 우리의 손으로 찾아내는 참다운 민족문화 창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이다. 민족문화라고 해서 판소리나 반복하고 옛가락에 심취하는 복고주의적 문화를 재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우리 소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 우리 고장의 명창인 선생의 뜻을 이어가고, 우리 소리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때가 아닌가 한다.

오늘날의 생활과 밀착되지 않는 전통이란 결국 관광용이나 한낱 골동취미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갖게된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는 임방울선생의 빛나는 예술혼을 기리고 전승하기 위한 대외이기에 많은 시민의 성원이 같이하기를 기원해 본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사회에서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을것 같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조건 "판소리는 좋은것이야"라고 외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사무국장〉

내달 17일부터 국감...제발 '민생 국감' 됐으면

다음달 17일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고 한다. 17대 국회 들어 마지막이 되는 이번 국감을 두고 국민의 심사는 편지 않다. 여야가 정쟁을 일삼고 과거사나 현안문제만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데 이번에는 대선후보들의 검증강화하려 하니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생에만 별로 관심이 없는듯 하다. 세계개편과 맞물린 각종 세금부담, 부동산 대책,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대학등록금 부담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다. 국감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명실상부한 진

단과 처방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치문제가 게임되어서는 안되며 여야가 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권에서 곧 있을 대선을 위해 서로 싸우고 대립각을 세운다면 국민들은 더욱더 국회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에 대한 냉소주의나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최우선시해야할 민생은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국감무용론이 다시 제기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항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無等鼓

“무슨 심보여? 오늘 하루 장사 안 하면 망하냐?” “근게 말이요. 우리도 성묘 가야 하고, 아줌마들도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요” 추석날, 담양의 한 음식점에 갔다가 젊은 주인 부부가 주고받는 말이 남았다. 명절 연휴 중 추석 하루만은 쉬려고 했는데, 옆집들이 문을 여는 통에 혼자만 놀 수 없게 됐다는 푸념이었다.

쉽게 전 계란을 깬다. 그런 손님을 놓칠 수 없다는 속내였을까? 저마다 '옛맛'을 내세운 국수집들은 추석날에도 모두 장사를 하고 있었다. 식당에서 받았던 적잖은 총액에 눈여겨 음내를 둘러보니, 현실은 도회지와 동떨어져 있었다. 떡갈비나 솜붙갈비를 파는 식당도 '추석 연휴 영업'이란 팻말을 내걸었고, 죽세품 가게도 셔터를 열

추석 풍경



그건 오랜 미립을 통해 깨달은 이치였을 것이다. 장사란 게 모한 것이어서, 한나절만 자리를 비워도 그 후 손님이 똑 떨어지기 때문일 게다.

했다. 동구 어느 한구석에도 제기차가나 웃놀이 판을 볼 수 없었다. 점심식사 후 고속도로로 접어들어 순간까지, 때깔 난 회복을 차려입은 아이도 찾지 못했다. 길가에 나뭇은 '귀향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은 되레 울시게시켰다.

필자가 들렀던 곳은 대나무를 사고파는 5일 장이 서는 담양 관방천 둔치 국수집이었다. 그 고관고만 키를 맞댄 가게를 앞엔 'KBS·MBC·SBS...무슨 무슨 신문·잡지에 소개된 맛있는 집'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대개 붙어 있다. 국수 한 그릇엔 2천500~3천원, 삶은 계란은 네개에 1천원을 받는다. 사람들은 아련한 옛 추억의 되새김으로 대나무 평상에 앉아 국수를 먹고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듯날만 같아라”는 속담이 있다. 현대 무엇이든, 추석 풍경을 이리도 삭막하게 만든 것일까? 텅 빈 지갑, 갈수록 팍팍한 살림, 취업난, 뛰는 물가... 우리네 삶이 아직도 버겁고 힘들다면, 어느 누가 명절 때 귀향을 꿈꿀까?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